

포장관련 교육프로그램 다양화되길

김택수 / (주)삼성잉크 개발부 계장

(사)한국포장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제5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식에서 (주)삼성잉크 개발부 김택수 계장이 1백점 만점에 96.2점을 획득, 총 82명 가운데 1등으로 수료했다.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얻어 기쁩니다. 포장기술 관리사 교육은 권태로워지던 회사생활에서 새로운 흥미유발과 전환점이 된 듯 합니다.”

김택수 계장은 “포장산업의 한 분야에서만 일해 오다가 포장의 전반적인 내용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은 것 같다”면서 수상 소감을 전했다.

현재 그라비아 인쇄에 필요한 잉크를 제조하는 (주)삼성잉크에 근무하고 있는 김 계장은 품질향상을 위한 잉크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직원의 능력향상과 흥미 유발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으로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삼성잉크. 그는 2번째 기수로 5기 관리사 교육에 임하게 됐다.

김택수 계장은 처음 포장기술관리사 교육 교재를 받았을 때는 한 주에 한 테마씩 진행하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단편적인 지식 이외에 새로운 분야의 내용을 이해하



여 자료를 찾고 요약·정리 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늦은 밤, 주말 시간을 이용해 통신교육 과제를 작성하느라 11주동안 개인적인 취미생활, 여가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전한다. 11주간의 바쁜 일정 때문에 여자친구에게도 소홀했던 점이 미안하다고….

김 계장은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재에 더 많은 예제와 그림이 첨부되어 교육생들의 이해를 쉽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5년여간 포장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동안 알고 행하였던 일들은 포장의 극히 단편적인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는 김택수 계장. 그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어지고 소비되어지는 물건이 내 손에 의해 만들어 진다는 것에 포장의 매력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포장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받고, 현재 일하고 있는 분야 이외에 더 시야를 넓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는 김택수 계장.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이 회사생활의 시원한 청량제 같았다고 회상하는 그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K]

포장단기 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대

김 장 순 / (주)누벨피엔에스 사원

“지난 11주간 교육은 업무와 교육을 병행하는데 솔직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사장님께 감사 드리며, 포장관련 교육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사)한국포장협회 임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한국포장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제5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식에서 (주)누벨피엔에스 김장순 씨가 총점 1백점 만점에 94.4점을 획득, 전체 수료자 가운데 2등으로 수상했다.

김장순 씨는 “제5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기간이 포장의 단편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상업포장에서부터 공업포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현재 김장순 씨는 철강포장전문업체인 (주)누벨피엔에스에서 인사전반 및 교육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다.

취업과 동시에 수습기간 동안 현장체험을 통해 포장에 대한 기초적인 실무에 대해 알게 됐다는 김장순 씨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포장인력양성”이라는 교육의 일환으로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을 택해 신청하게 됐다고 전한다.



인사담당자로서 인사고가반영에 있어서 포장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는 김장순씨는 포장전문인력양성을 진행하면서 작게나마 회사의 방침에 일조하게 된 데 대해 기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배웠던 포장에 관한 내용을 이론적으로는 정립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었다며 업무를 진행하면서 포장전문서적을 찾는 등 포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해 왔다1고 말했다.

김장순 씨는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이 공업포장 중 중량물 포장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게 첨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했다.

그는 포장관련 단체가 주축이 되어 포장전문업체에 대한 단기 강좌가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COIL 포장, TWB(Tailor Welded Blanks) 등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포장산업 분야에 비전문인력이 많은 현실에서 포장기술관리사에 합격했다는 데 자부심이 생긴다는 김장순 씨. 향후 포장기술사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는 그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항상 배움의 자세로 임할 터

김 지 혜 /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원

제5기 포장기술관리사에 3등으로 합격한 목포대 식품공학과 김지혜 연구원은 “포장협회 관계자 및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교수님,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포장기술관리사 수료 외에 뜻밖의 상이라 더욱 기쁨이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녀는 현재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식품공학실험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생고분자 필름을 제조, 개발 하여 수분저항성이 증진된 필름을 만들어, 이를 이용한 종이 코팅은 물론 종이 박스 등을 제작, 연구하고 있다.

“재학 당시 학부 수업때 포장학 수업을 들으면서 포장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는 김 연구원은 포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하고자 이번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 지원하게 됐다.

그녀는 “연구원이다 보니 관련 실험 및 보고서에 대한 업무량이 많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통신교육을 집중적으로 공부 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쉬움이 남는다”고 회상했다.

이러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김 연구원은 포장



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이 동영상같은 영상 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보충 자료가 준비될 바라고 있다.

덧붙여 “통신교육 후 포장기술관리사증만 받고 끝나버리는 교육이 아니라 제2, 제3의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다양한 교육을 연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표했다.

금번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통해 포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뜻 깊었다는 김 연구원은 “포장산업에 종사하면서 새로운 연구동향과 기술, 그리고 소비자에게 편리한 제품 등을 볼 때마다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니라 매일 수준 높은 기술과 방법이 연구 개발되어 제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때 자랑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 수료획득에 더 나아가 앞으로 꾸준히 포장과 관련된 공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배워나가겠다는 김지혜 연구원.

항상 배움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 김지혜 연구원의 앞으로의 도전이 기대된다. ☐